

소년범 재범위험요인에서의 성차연구: JDRAI-D를 중심으로

양 은 경 이 수 정[†] 김 병 배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 유발요인에 있어서 남·여 성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의 요인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준법지원센터와 소년원에 재원 중인 비행 청소년 총 188명(남자: 95명, 여자: 9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JDRAI-D(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를 사용하였다. JDRAI-D는 성격·태도, 학교/직장, 가족, 또래 친구, 정신건강, 여가/생활양식, 성 요인을 포함하는 소년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이다. 그리고 향후 대상자들이 미래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들의 비행력 등을 반영하여 향후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에 대하여 예측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 요인에 있어서 남·여 성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비행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남·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재범위험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남자 비행 청소년들은 성격·태도 요인이 비행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여자 비행 청소년은 성격·태도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이 비행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르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고, 특히 재범위험요인에서 남·여 성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요어 : 비행 청소년, 재범위험성 평가, 재범위험요인, JDRAI-D, 성차.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Tel : 031-249-9198, E-mail : suejung@kgu.ac.kr

2017년 9월 1일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자 청소년들은 둔기를 사용하여 후배 여중생을 1시간가량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자신들의 신상이 밝혀지자, 잠시나마 반성의 기미를 내비쳤지만, 곧 욕설을 하며 태도를 바꾸었다. 이 사건 이후 9월 4일 강릉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의 일방적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들 또한 자신들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금세 잊힐 것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비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중앙일보, 2017.09.12.).

이 외에도 법무부(2017a)의 「2017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2015년 소년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11.7%이고, 2016년 소년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12.3%이다. 같은 연도의 성인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2015년에 5.2%이고, 2016년에 5.6%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소년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이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소년범들의 처벌의 수치를 높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년범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대검찰청(2016) 2016 범죄분석을 통해 2015년 남자 소년범들은 85.22%, 여자 소년범들은 14.78%임을 알 수 있다. 전체 범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8.4%임을 고려해 볼 때, 여자 소년범의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렇듯 확연한 성비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소년범에게 재범위험성 평가 및 향후 처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혜원(2017)의 연구에서도, 남자와 여자 청소년들의 재범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몰성적(gender-blind)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성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이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성차에 대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남자와 여자 비행청소년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성차의 특성에 대한 연구(전영실, 2003; 윤옥경, 이춘화, 2003)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각각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남녀 청소년의 재범위험요인을 직접적으로 상호 비교를 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 이하 JDRAID)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위험요인 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직접 비교·분석하였다. 만일, 재범위험요인에 있어 성차가 나타난다면, 비행청소년들의 향후 처우에 대한 제언 역시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배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범위험요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것은 반사회적 성향이다(허연주, 성유리, 박광배, 이민규, 2014).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는 등 공격적인 특징을 보인다(박서현, 채규만, 2011). 특히 청소년은 초기에 공격성을 적절히 분출하지 못할 경우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Lober & Stouthamer-Lober, 1998).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공격 욕구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이나 쉽게 화를 내는 것과 같이 정서적 통제에 결함을 보이는 등 충동성 조절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임지영, 황순택, 2011). 이러한 청소년의 충동성은 절도, 파손 행동, 공격 행동, 규칙위반과 관련성을 보인다(성상희, 홍창희, 김귀애, 2014). 이 외에도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을 자극추구 동기가 높은 사람이라 하며(Zuckerman & Link, 1968),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절도, 파손 행동, 공격 행동, 약물 남용의 비행들과 관련되었음을 밝혔다(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이와 같은 청소년의 자극추구 성향은 성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음란물 노출과 같은 성비행 또한 증가할 수 있다(이효빈, 최윤경, 2016).

이 외에 다른 심리적인 요소인 정신건강과 재범위험성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해 폭력범죄와 같은 심각한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를 수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박소은, 2009). 또한, 청소년기 초기에 정신장애가 발병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살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ter, Mundo, Parikh, & Kennedy, 2003). 그 중에서도 우울증이 있는 비행 청소년들은 인지적 장애로 사회적 규범을 충분히 배울 수 없다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으며, 우울증을 지닌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청소년 사범 시설에 수용될 확률이 72% 더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었다(Cole & Kumchy, 1981; Yampolskaya & Chuang, 2012).

청소년들의 환경적인 요소인 가정 및 가출과 재범위험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강소영(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소년비행의 연관성을 밝혔는데, 부모의 신체적·정서적 폭력

은 부모의 방임을 유발하고,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들의 지위 비행과 경비행을 촉발하였다. 이렇듯 가족 간의 갈등,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이 가출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가정에서의 무관심이 청소년들의 반복적인 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시사되었다(이민수, 2013).

이처럼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사회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지면 비행집단에 가입하게 된다(신동준, 2005). 그리고 이러한 친구집단 자체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지지 기능을 하며,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부추기는 등 비행을 유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정지원, 강정환, 2012).

학교생활과 재범위험성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Wang과 Fredricks(2004)는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알코올/약물 중독과 같은 청소년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짐을 밝혔다. 이와 달리 교사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들은 금품갈취·강요, 신체·언어폭력 등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같은 학교 부적응 형태를 보일 수 있음을 밝혔다(김태곤, 2012).

그리고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도피나 압박감의 분출구로서의 잘못된 여가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여가에 대한 욕구를 비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조수영, 2015). 김나영, 최연희(2011)는 중학생의 여가활동과 음주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음주를 함으로써 높은 여가 만족을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재범위험요인의 성차

반사회적 성향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면, 이혜정, 위슬아, 김범준(2015)은 공격성의 하위 유형에 따른 성차를 밝혔는데, 남자 청소년들

은 주로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외현적 공격성을 보였으며, 여자 청소년은 관계적 속성에 중점을 두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임을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당함에 따라 보이는 문제 양상과도 비슷하다. 남자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을 당함에 따라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이며, 여자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을 당함에 따라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출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비행 양상을 보였는데, 가출한 남자 청소년들은 범죄 조직화를 통해 강도, 절도 등의 재산범죄와 마약, 약물 범죄를 저지르며, 가출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김연주, 2011). 이처럼 남자와 여자 청소년 모두 비행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만(박진희, 김현주, 2012),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비행 친구들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집단 비행에 참여와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정승민, 2007).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Lederman, Dakof, Larrea와 Li(2004)는 여자 비행 청소년들의 정신장애 진단율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불안장애 계열이 59%, 주요우울장애는 36%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Whitney, Renner와 Herrenkol(2010)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더 많은 심리적 외상(trauma)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 경험이나 성적 학대와 같은 심리적 외상을 겪으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성매매와 같은 일탈적인 성 비행행동을 보일 수 있다(최해연, 곽윤영, 배주미, 2015).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학교중퇴나 가출, 지위 비행의 경험이 증가하지 않지만, 여자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한 이후 학교중퇴와 같은 학교

부적응, 우울 등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이혜경, 2011).

정신건강 중 하나인 우울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Hackett, 2007; 송지영, 이광철, 2002). 공미혜, 성정현, 이진숙(2010)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우울증 심사 결정 자료 분석을 통해 20대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높은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여성에게서 더 높은 우울증을 밝혔다. 이처럼 여자 청소년들도 남자 청소년들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곽금주, 문은영, 1995). 이러한 우울 및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음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김원경, 2014),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문제를 단기간에 심각하게 겪을 수 있다(김미정, 고명숙, 2008).

이렇듯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재범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요인에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였을 때, 반사회성과 비행친구가 주요 재범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며, 이에 비하여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적 피해와 정신건강이 재범위험요인으로 부각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실증적인 자료에서 검증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연구 방법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총 201명의 소년범 중 무성의한 응답을 보이거나, 수사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13명을 제외한 18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분석을 실행하였다. 188명 중 128명은 서울·경기권에 위치한 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관찰대상자였으며 60명은 경기권 소재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소년원생이었다.

연구 대상자 188명 중 남자는 95명(50.5%), 여자는 93명(49.5%)이었다. 기관별 성비로 남자는 보호관찰대상자 65명(68.4%), 소년원생 30명(31.6%)이며, 여자는 보호관찰대상자 63명(67.6%), 소년원생 30명(32.3%)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들은 최소 만 13세부터 만 21세까지의 나이 분포를 보이고 평균 나이는 17세(SD=1.46)이며, 만 17세가 56명(29.8%)으로 제일 많았다.

연구절차

연구 참여와 자료열람에 동의한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JDRAI-D 평가가 이루어졌다. 면담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면담은 대상자와 평가자 간 1대 1로 진행되었으며, 독립된 면담실에서 이루어졌다. 평가자들은 사전에 워크샵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워크샵에서는 JDRAI-D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해당 문항에 대한 구체적 질문 예시를 통해 반구조화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평가자들이 사전에 일관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

자들이 심층 면담을 통해 대상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였고, 이후 자료열람을 통해 대상자들의 범 죄력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

보호관찰 청소년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JDRAI-D,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

JDRAI-D는 법무부(2017b)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JDRAI-S(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 도구이다. 이러한 JDRAI-D는 7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요인별로 5개의 하위 측정 문항을 가지고 있어, 총 7요인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JDRAI-D를 구성하는 7요인은 성격·태도, 학교/직장, 가족, 또래 친구, 여가/생활양식, 정신건강 그리고 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요인은 남자와 여자 청소년의 성차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JDRAI-D의 요인별 문항 예시를 간략하게 표 1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있음, 없음' 식의 이분형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수의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1점, 존재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소년범들은 최소 0점에서부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점수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총점 0점 이상부터 13점 이하는 재범 위험성 '하' 수준이며, 총점 14점 이상부터 16점 이하는 재범 위험성 '중' 수준이고, 총점 17점 이상부터 총점 35점 이하까지는 재범 위험성 '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JDRAI-D 총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하' 집단과 '중' 집단의 AUC=.707이며

표 1. JDRAI-D의 각 요인별 문항

JDRAI-D 요인	문항
성격· 태도	충동성 및 자극추구성향
	공격성 및 분노조절 문제
	행동 통제력
	범죄력의 진전도
학교/ 직장	면담 시 태도
	현재 재학/재직 여부
	최근 6개월 이내 징계 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최근 6개월 이내 구성원 간 갈등
가족	자기계발 의지
	구조적 결손(친부모 부재) 여부
	양육자와의 관계
	최근 3년 이내 가정폭력 경험
또래 친구	최근 1년 이내 가출 경험
	가출 시 비행경험
	입건 경험 있는 또래 친구
	수용 경력 있는 또래 친구
	또래 친구의 비행에 허용적인 태도
정신 건강	친사회적 친구
	비행집단에 가입한 경험
	ADHD, 충동조절,品行장애 진단
	기분장애 진단 등
	사회적 고립
여가/ 생활 양식	피해의식
	자해/자살 시도
	알코올/약물 중독·의존
	인터넷/게임 중독
	사이버 비행
	불규칙한 생활 습관
	불건전한 장소 출입

표 1. JDRAI-D의 각 요인별 문항 (계속)

JDRAI-D 요인	문항
남 성	성매매, 성매매 알선/강요 경험
	문란한 성생활/성도착
	음란채팅 등 사이버상 성 일탈
	음란물 중독
성	강간통념
	(성범죄를 합리화하는 성 인식)
	조건만남 경험
	성매매 알선/강요 경험
여 성	비정상적 성관계 경험
	성폭력 피해 후 부적응
	임신 후 대처방법

재범 위험성 ‘중’ 집단과 ‘상’ 집단의 AUC= .619로 높은 재범 예측 정확도를 보인다. JDRAI-D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35문항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766으로 신뢰성 있게 나타났다. JDRAI-D의 평가자 간 신뢰도 값은 .769로 높은 평가자 간 일치도를 보인다(법무부, 2017b).

비행횟수

연구 대상자들이 향후 미래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를 미리 예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 대상자들이 과거 저지른 비행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비행횟수를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수사 전력은 표 2에 간략히 제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수사 경력을 살펴보면, 이전 수사 경력이 없는 초범은 40명(21.3%)이며 과거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수사 전력 빈도 결과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총합	
수사 경력	초범	16 (16.8)	24 (25.8)	40 (21.3)
	재비행	79 (83.2)	69 (74.2)	148 (78.7)
	합계	95 (100.0)	93 (100.0)	188 (100.0)
수사 횟수	최소 횟수	0 (16.8)	0 (25.8)	0 (21.3)
	최대 횟수	27 (1.1)	24 (1.1)	27 (0.5)
	평균 횟수	3.9 (4.7)	2.52 (3.2)	3.2 (4.1)
수사 전력	대인범죄	46 (23.1)	35 (31.3)	81 (26.0)
	교통범죄	19 (9.5)	3 (2.7)	22 (7.1)
	보호관찰 위반	27 (13.6)	43 (38.4)	70 (22.5)
	성범죄	24 (12.1)	10 (8.9)	34 (10.9)
	재산범죄	50 (25.1)	14 (12.5)	64 (20.6)
	기타	33 (16.6)	7 (6.2)	40 (12.9)
	합계	199 (100.0)	112 (100.0)	311 (100.0)

대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존속폭행, 협박, 모욕.

수사 경력이 있는 재비행 청소년은 148명 (78.7%)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수사 횟수를 살펴보면, 최소 횟수는 0회이며 최대 횟수는 27회이고, 수사횟수의 평균은 3.20회(SD=4.10)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수사 전력을 살펴보면, 대인범죄가 81번(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재산범죄가 64번(20.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70번(22.5%)이 뒤를 이었다. 남자 청소년은 재산범죄가 50번(2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 청소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43번(38.4%)으로 가장 많았다.

분석 방법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재범위험요인들에서

성별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차가 관찰되었고, 남자와 여자 청소년들 각기 보이는 재범위험요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자와 여자 데이터를 분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여 비행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JDRAI-D의 요인별 남녀차이

본 연구에 활용되는 JDRAI-D의 하위요인들과 비행횟수들을 대상으로 남녀청소년들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간략히

표 3. JDRAI-D 요인별 남녀차이 *t* 검정결과

단위: 평균(표준편차)

주요변수	남자	여자	총 합	<i>t</i>
성격·태도	3.35 (1.32)	3.44 (1.18)	3.39 (1.25)	-.511
학교/직장	2.35 (1.35)	2.19 (1.13)	2.27 (1.24)	.849
가족	1.89 (1.36)	2.96 (1.37)	2.42 (1.46)	-5.349***
또래친구	3.20 (1.14)	3.44 (1.28)	3.32 (1.21)	-1.365
정신건강	0.62 (0.91)	0.99 (1.06)	0.81 (1.03)	-2.643**
여가/생활양식	2.01 (1.09)	2.61 (1.28)	2.31 (1.22)	-3.480***
성	0.88 (1.05)	1.27 (1.28)	1.07 (1.18)	-2.252*
비행 횟수	3.87 (4.73)	2.52 (3.22)	3.20 (4.10)	2.297*

* $p < .05$ ** $p < .01$, *** $p < .001$

제시하였다. 예상한 대로, 남자와 여자 청소년의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 및 비행횟수 중에서 가족 요인, 여가/생활양식 요인이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나타냈으며, 정신건강 ($p < .01$), 성 요인, 비행횟수($p < .05$)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JDRAI-D가 비행횟수에 미치는 영향

JDRAI-D의 하위요인들이 비행횟수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인들을 추출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과 오차(Tolerance)를 검토하였다. Slinker와 Glantz(1985)는 분산팽창요인 값을 4 미만으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의 VIF 값도 모두 4 미만으로 나왔으므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병화(1998)는 오차 값이 일반적으로 1에 가까우면 변인 간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의 오차 값이 1에 가까우므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는 남자 청소년의 JDRAI-D가 비행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7에서 F값이 2.981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는 .129로 12.9%의 설명력을 보인다(수정된 $R^2 = .129$). 또한, Durbin-Watson 값은 2.082로,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며, 기준값인 2에 근접하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변인 중 성격·태도 변인이 비행횟수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9, p < .001$). 이를 통해 남자 청소년들은 성격·태도 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재비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는 여자 청소년의 JDRAI-D가 비행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0에서 F값이 4.966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는 .232로 23.2%의 설명력을 보인다

표 4. JDRAI-D요인들의 비행횟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자/N=95)

하위요인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	VIF
성격·태도	1.39	.39	.39***	3.54	.00	.77	1.29
학교/직장	.08	.42	.02	.20	.84	.66	1.52
가족	.37	.37	.11	1.01	.32	.82	1.22
또래친구	-.03	.47	-.01	-.07	.94	.71	1.40
정신건강	-.05	.54	-.01	-.09	.93	.84	1.19
여가/생활양식	-.34	.46	-.08	-.74	.46	.81	1.23
성(남자)	.36	.47	.08	.77	.44	.86	1.16

* $p < .05$ ** $p < .01$, *** $p < .001$

표 5. JDRAI-D요인들의 비행횟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여자/N=93)

하위요인	B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	VIF
성격·태도	1.22	.28	.45***	4.39	.00	.80	1.25
학교/직장	-.46	.28	-.16	-1.60	.11	.84	1.19
가족	-.29	.27	-.13	-1.11	.27	.66	1.52
또래친구	.11	.27	.05	.43	.67	.73	1.38
정신건강	.62	.31	.20*	2.01	.045	.82	1.22
여가/생활양식	.27	.26	.11	1.06	.29	.80	1.26
성(남자)	-.07	.27	-.03	-.24	.81	.71	1.40

* $p < .05$ ** $p < .01$, *** $p < .001$

(수정된 $R^2 = .232$). 또한, Durbin-Watson 값은 2.393이다. 변인 중 성격·태도 변인($\beta = .45$, $p < .001$)과 정신건강 변인($\beta = .20$, $p < .05$)이 비행횟수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은 성격·태도 변인과 정신건강 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재비행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의한 하위요인의 개별문항이 비행횟수에 미치는 영향

앞서 JDRAI-D의 하위요인 중 비행횟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의미한 요인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항이 비행횟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남자 청소년의 JDRAI-D 중 유의한 하위요인인 성격·태도 요인의 개별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횟수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0에서 F값이 7.421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는 .255로 25.5%의 설명력을 보인다(수정된 $R^2 = .255$). 또한, Durbin-Watson 값은 1.981로 나타났다. 개별문항 중

행동 통제력($\beta=.22, p<.05$)과 범죄의 심각화($\beta=.40, p<.001$)가 비행횟수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JDRAI-D 중 유의한 하위요인인 성격·태도 요인의 개별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횟수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00에서 F값이 6.746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는 .238로 23.8%의 설명력을 보인다(수정된 $R^2=.238$). 또한, Durbin-Watson 값은 2.103으로 나타났다. 개별문항 중 범죄의 심각화가 비행횟수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3, p<.001$).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JDRAI-D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정신건강 요인도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26에서 F값이 2.696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결정계수는 .084로 8.4%의 설명력을 보인다(수정된 $R^2=.084$). 또한, Durbin-Watson 값은 2.300이다. 개별문항 중 기분장애 진단 등이 비행횟수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9, p<.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요인에 대한 성차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DRAI-D가 비행력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요인 중 어떠한 문항이 비행력을 설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의한 관계를 보인 요인들의 세부 문항을 독립변수로 하

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와 여자 청소년 모두 성격·태도 요인이 비행횟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성상희, 홍창희, 김귀애, 2014;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이해정, 위슬아, 김범준, 2015)와도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성격·태도요인에서 행동통제력과 범죄의 심각화 문항이 비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성격·태도요인에서 범죄의 심각화 문항이 비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문항이었다. 그리고 추가로 여자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요인이 비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그중에서 기분장애 진단 등이 비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문항이었다. 이는 선행연구(Lederman, Dakof, Larrea & Li, 2004; 이해정, 2011; 광금주, 문은영, 1995)와도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요인에 있어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성차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 정신건강 요인이 여자 청소년들에게서만 예측요인으로 산출된 것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면, 이는 여자 청소년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은 비행 과정에서 조건만남, 성매매 혹은 성적 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외부로 알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방식을 보인다(윤옥경, 서은경, 2014). 위와 같은 내면화 방식에 대해 Sgroi(1982)는 '손상된 물건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이라 설명하였다. 이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성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받지 못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성매매 및 성폭행 피해 여성 청소년들은 죄책감,

순결을 잃은 상실감 등의 정서를 경험하고 이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Briere & Runtz, 1987; Gindycz & Koss, 1989; 김정규, 채규만, 1996). 따라서 무력감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므로 자기·손해적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다시 성 비행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권희경, 장재홍, 2003).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에 따라 정신건강 요인이 여성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측하는 원인으로 설명력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충분한 표본 수는 통계의 검증력·효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수집한 연구대상자는 남자 95명, 여자 93명으로, 고급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례 수가 모이면, 여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부분에서도 더욱 확연한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후속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연구에 진행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17살, 18살에 집중되는 등 연령구간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는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연구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비행 횟수의 경우, 범죄의 횟수가 많은 경우에도 그 시기가 밀접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잦은 비행을 보임에도, 기록상 1건의 사건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비행횟수를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남자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재비행을 저지르는데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할 때, 남자와 여자 각기 다른 요인에 중점을 두어 선도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취약성을 보이며 이는 재범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이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선도에 있어 성별에 맞는 선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할 것이며, 성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개인상담보다는 성차를 고려한 표준화된 처우지침을 개발하여 집행하는 것이 소년범들의 재범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차에 따른 선도 및 처우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12).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8(1), 5-30.
- 공미혜, 성정현, 이진숙 (2010). *여성복지론*. 서울: 신정.
- 곽금주, 문은영 (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권희경,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김나영, 최연희 (2011). 중학생의 여가활동과 흡연·음주와의 관계. 지역사회관호학회지, 22(2), 131-140.
- 김미정, 고명숙 (2008). 음주관련 요인에 따른 남녀고등학생의 음주태도 비교 연구.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9(2), 73-83.
- 김연주 (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11(2), 239-273.
- 김원경 (2014). 청소년 음주행동 영향요인의 성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191-210.
- 김정규, 채규만 (1996). 성폭력피해의 평가와 심리상담. 성폭력피해 세미나 자료집.
- 김태곤 (2012). 학교생활 적응성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4), 49-73.
- 박서현, 채규만 (2011).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 인간이해, 32(2), 127.
- 박소은 (2009). 폭력범죄 청소년과 정신장애 성향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3), 3-42.
-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5(1), 377-386.
- 박진희, 김현주 (2012).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차.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복지 연구, 14(3), 75-96.
- 법무부 (2016).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JDRAI-S 개발보고서.
- 법무부 (2017a).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법무부 (2017b). 보호관찰 청소년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JDRAI-D 개발 보고서.
- 성상희, 홍창희, 김귀애 (2014).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남자 비행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57-175.
- 송지영, 이광철 (2002). 여성에서 왜 우울증이 많은가. 경희의학, 18(2/4), 170-181.
- 신동준 (2005). 남녀 청소년들의 폭력씨클 가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조사연구소, 1, 181-220.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윤옥경, 서은경 (2014). 여성의 생애사건이 여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질적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교정연구, 62, 55-78.
- 이민수 (2013). 청소년의 반복가출과 가출전환 경험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5(2), 87-119.
- 이정민, 조운오 (2017).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JDRAI-S 및 처우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17(1), 7-40.
- 이혜경 (2011). 성매매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23-444.
- 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 이효빈, 최윤경 (2016). 자극추구 성향과 또래 동조성이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 257-278.
- 임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71-92.

- 정승민 (2007). 청소년비행의 성차이에 대한 통합 모형. *한국범죄심리연구*, 3(2), 219-247.
- 정지원, 강정한 (2012). 친밀한 친구집단의 크기와 청소년 비행. *한국사회학*, 46(5), 177-209.
- 정혜원 (2017) 시설보호비행 청소년의 재범태도 및 영향요인에 대한 성인지적 차이 연구-6호 처분 수용 소년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1(1), 185-209.
- 조수영 (2015). 청소년의 여가활동에서 비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청소년문화포럼*, 44, 97-124.
- 중앙일보 (2017.09.1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대응 나선 정부. <http://news.joins.com/article/21929949>.
- 최해연, 곽윤영, 배주미 (2015). 청소년 성매매 피해의 심리사회적 결정요인. *재활심리연구*, 22(1), 223-236.
- 허연주, 성유리, 박광배, 이민규 (2014).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자의 충동성과 성격 강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5(2), 63-81.
- Andrew, D. A. & Bonta, J.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2nd, Cincinnati, OH: Anderson.
- Briere, J. & Runtz, M. (1987). Post sexual abuse trauma: Data and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367-379.
- Carter, T. Mundo, E., Parikh, S. V., & Kennedy, J. L. (2003) Early age at onset as a risk factor for poor outcome of bipolar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7(4), 297-303.
- Cole, E., & Kumchy, C. I. G. (1981). The CIP Battery: Identification of depression in a juvenile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4), 880-84.
- Gindycz, C. A. & Koss, M. P. (1989). The impact of adolescent sexual victimization: Standardized measures of anxiety, depression and behavioral deviancy. *Violence & Victims*, 4(2), 139-149.
- Hackett, R. J., Sagdeo, D. & Creed, F. H. (2007). The physical and social associations of common mental disorder in a tribal population in South India.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 712-715.
- Hanson, R. K. (1998). What do we know about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4(1/2), 50-72.
- Lederman, C. S., Dakof, G. A., Larrea, M. A. & Li, H. (2004). Characteristic of adolescent females in juvenile de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7, 312-337.
- Lo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Hom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l psychologist*, 53, 242-259.
- Lodewijks, H., Doreleijers, T., & de Ruiter, C. (2008). SAVRY risk assessment in violent dutch adolesce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ur*, 35(6), 696-709.
- Mulder, E., Brand, E., Bullens, R. & Marle, H. V. (2010). A calssification of risk factors in serious juvenile offenders and the relation between patterns of risk factors and recidivism.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0(1), 23-38.
- Sgroi, S. M. (1982). *A conceptual framework for child sexual abuse*. Lexington Books.

- Slinker, B. K., & Glantz, S. A. (1985). Multiple regression for physiological data analysis the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249, 1-12.
- Wang, M. T., & Fredricks, J. (2014). The reciprocal links between school engagement, youth problem behaviors, and school dropout during adolescence. *Child Dev*, 85(2), 722-737.
- Whitney, S. D., Renner, L. M. & Herrenko, T. I. (2010). Gender differences in risk and promotive classifications associated with adolescent delinquenc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1(2), 116-138.
- Yampolskaya, S., & Chuang E. (2012). Effects of Mental Health Disorders on the Risk of Juvenile Justice System Involvement and Recidivism Among Children Placed in Out-of-Home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2(4), 585-593.
- Zuckerman, M., & Link, K. (1968). Construct validity for the sensation-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420-426.
- 1차원고접수 : 2018. 01. 21.
심사통과접수 : 2018. 02. 19.
최종원고접수 : 2018. 03. 04.

The Study of Gender Differences in Juvenile Recidivism Risk Factors: Focused on JDRAI-D

Eun Kyeong Yang

Soo Jung Lee

Byung Bae Kim

Kyonggi University

Ministry of Jus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cidivism of delinquent juveniles. This study also tried to find out whethe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causing recidivism or not. 188 juvenile delinquents (95 males and 93 females) in South Korea, who were put either on probation or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 (JDRAI-D) was used to measure the risk of recidivism. JDRAI-D is a dynamic risk assessment tool measuring dynamic factors such as a personality · attitude, school/workplace, family, peer friends, mental health, leisure/lifestyle and sexual behavior factor. The history of delinquency used to predict the recommitted crime. Also, male and female data separately were analyzed in order to see the gender differences in recidivism risk fa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examine the explanatory power of factors of JDRAI-D in delinquent juvenile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personality · attitude factor' has more meaningful explanatory power ($\beta=.39, p<.001$) in the male adolescents. Also, we can read off that female delinquents affect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s on the 'personality · attitude factor' ($\beta=.45, p<.001$), and on the 'mental health factor' ($\beta=.20, p<.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how the 'personality · attitude and mental health factors' impinge on recidivism by the juvenile delinquents.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exists in recidivism risk factors.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Recidivism risk assessment, Recidivism Risk Factor, JDRAI-D, Gender difference.